

**2021년 4분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BNK금융그룹의 CFO를 맡고 있는 정성재 전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여러분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 뵙고 인사 드려야 하나, 이렇게 컨퍼런스콜에서 뵙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사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BNK금융그룹의 연간 경영실적에 대해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p) 2021년 4분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2021년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717억원, 52.3% 증가한 7,910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요 자회사들 모두 전년대비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창출능력 향상으로 그룹의 경상적인 순이익 수준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손익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룹 연간 이자이익은 양행과 캐피탈의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NIM 개선으로 전년대비 3,873억원, 17.7%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부문이익은 투자증권 중심의 PF수수료 증가로 전년대비 967억원, 26.6%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부문이익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 및 신보료·예보료 증가와 외환·파생관련 이익 축소로 전년대비 182억원, 2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부문입니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전년대비 1,609억원, 11.2% 증가하였습니다.

양행의 희망퇴직 증가와 증권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확대 등 인건비 상승이 그룹 판매관리비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양행의 희망퇴직 비용과 증권의 성과급 증가분 제외 시 그룹 판매관리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충당금전입액은 4,147억원으로 양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 발생 축소와 코로나충당금 추가 적립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89억원, 8.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회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은행부문 연간 당기순이익은 양행의 이자이익 증가 및 총당금전입액 감소로 전년대비 1,601억원, 33.8%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은행 순이익은 4,026억원으로 전년대비 941억원, 30.5% 증가하였고, 경남은행 순이익은 2,306억원으로 전년대비 660억원, 40.1%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 순이익은 캐피탈과 투자증권 호실적에 힘입어 전년대비 1,3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 순이익은 1,332억원으로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로, 대출상각에 따른 총당금 증가 불구하고 전년대비 613억원, 85.3%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증권 순이익은 1,161억원으로 PF수수료 등 수수료수익 증가와 유가증권 관련 수익 확대로, 실적연동 성과급 급증에도 전년대비 627억원, 117.4% 증가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은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로 견조한 이익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자산운용은 수탁고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와 고유자산 운용이익 상승으로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성

4분기 그룹 NIM은 1.92%로 전분기대비 1bp 상승하였습니다.

부산은행이 1.97%로 3bp 상승한 반면, 경남은행은 1.86%로 동일하였습니다.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채금리 급등으로 양행의 여신금리는 모두 크게 개선되었으나,

수신금리의 경우 4분기 공공기관의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저원가성수신 감소가 컸던 경남은행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그룹 분기 NIM 반등폭을 제한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영계획에서 그룹 기중 NIM은 전년대비 7bp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산은행이 8bp, 경남은행이 5bp 상승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는 美 연준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양행의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감안 시 목표수준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부산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경남은행은 10.3%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양행 모두 비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산은행이 12.4%, 경남은행은 9.8%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산은행이 11.3%, 경남은행은 11.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4분기는 양행 모두 가계대출부문에서 전분기대비 일정폭 감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대출성장률은 각각 6%, 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4분기 그룹 NPL비율은 0.45%로 전년말대비 25bp 하락하였고, 그룹 연체율 역시 0.36%로 전년말대비 12bp 하락하였습니다.

양행의 건전성 지표는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부실기업 축소 노력 등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의 NPL비율은 0.32%, 연체율은 0.56%로 선제적인 부실채권 상각으로 건전성 지표는 업종 내에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룹 누적 Credit Cost도 0.42%로 전년대비 9bp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입니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11.02%로 높은 자산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증가 및 그룹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전년대비 122bp 상승했습니다.

2022년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회사별 수익성과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RWA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11% 이상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3월 정기주총에서 확정 예정이지만, 2021년 주당 배당금은 560원, 배당성향은 23%로 오늘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시가배당률은 6.3%로 공시 예정입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자본비율과 한단계 높아진 이익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 상향 노력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그룹 당기순이익 목표는 8,70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성과의 지속 창출을 위해 수익의 질적인 개선과 함께 효과적인 비용관리 통해 수익 효율성 제고하여 연간 계획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최근 10년여 동안 동남권 경제성장률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당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 자동차, 철강 업종 등 동남권 주력업종의 회복세가 예상되어, 국내 경제성장률과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우량 자산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 결과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올해 시장금리 상승 시 큰 폭의 이자수의 증가도 기대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BU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비은행 자회사로 구성된 투자BU를 중심으로 IB, PI투자 등 신규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그룹 투자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당사의 펀더멘털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BNK금융그룹에 대해 시장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